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사의 무설법문 지남 삼아 사자평 가로지르다

김현테 기자

+ - ≡

교계 입력 2021.10.17 18:25 수정 2021.10.18 10:38 호수 1606 댓글 1

호국의 땅 사자평 지나 통도사 문턱 울산 도착
회향 앞둔 주말 맞아 청년불자 등 200여명 동참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표충사에서 새벽예불을 모신 후 불보종찰 통도사로 향하는 마지막 고개인 해발 800m의 사자평으로 향했다.

불법승 삼보에 대한 신실한 예경과 불교종흥의 발원으로 행선에 나선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승보종찰 송광사와 법보종찰 해인사를 참배한 후 마지막 순례지인 불보종찰 통도사 문턱에 다가섰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10월17일 밀양 표충사를 출발해 울산 캠핑월드까지 25km를 행선했다. 순례 17일차를 맞은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은 시월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새벽 표충사에서 예불을 모신 후 불보종찰 통도사로 향하는 마지막 고개인 해발 800m의 사자평으로 향했다. 정상까지 이어진 7km의 순례길은 가파른 오르막이 계속됐고, 지난 16일간 평균 25km씩 힘든 행선을 해온 만큼 사자평으로 향하는 길이 쉽지않은 않았다.

아주먼 사랑나눔 캠페인
한달 만원 후원은 마음입니다.
후원 상담 ☎ 070.4707.1080

최신뉴스

더보기 >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사유하는 기쁨' 출판간



조계종, 교구본사주지
회의 소집... '정청래 의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
함박종합사회복지관, 개관 2주년 기념 인연이...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국무...
"한국어 자신있어요"...국제포교사회, 외국인근...
감각적인 몸짓으로 표현하는 인연
선학원미래포럼, "성범죄자 이사장 선출은 불...
"불교종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천리순례 17일차] 시월 한파 속 역사의 무설법...

연재

< >

신현득의 내가 사랑한 동시

112. 유동숙의 '가을 비 소리'



김호귀의 공국집과 선문답

83. 제82척 덕산상당(德山上...)



이필원의 붓다 교화에 나서다

82. 재가신자가 병에 걸렸을 ...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 차례 휴식을 취한 후 능선에 도달하자 재 너머 깊어가는 가을정취를 품은 사자평의 풍광이 그림처럼 펼쳐졌다. 곳곳에 살얼음이 낀 추운 날씨에도 누렇게 굽이치며 산 능선을 가득 메운 억새들은 하늘하늘 춤을 추며 순례단을 반겼다. 순례단이 각각 사부대중이 하나가 돼 걷듯이 억새들은 각

김효선의 어르신을 위한 Q&A

17. 가족돌봄



명법문 명강의

해인사승가대학 학감 법장 스님



많이 본 뉴스

- 01 18. 탈종교 시대와 불교 (2)
- 02 “부처님 가피 법보시로 갇아야죠”
- 03 웰컴 세대의 새로운 가치
- 04 18. 즐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
- 05 광주시, ‘가톨릭 순례길’ 조성사업 공식 사과...“전면 재검토”
- 06 정청래 의원, 문화재관람료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매도
- 07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08 18. 종교 차별한 역대 정권의 수도권 도심 개발 - 상
- 09 미디어오늘, 불교계 언론보도 왜곡하나
- 10 조계종 “불교계 사기꾼으로 매도한 정청래 의원 공개 참회하라”

각 하나이며 전체이고 전체이며 하나인 장엄한 화엄세계를 펼쳐보이고 있었다. 특히 소리꾼 장사익씨가 사자평에서 억새를 배경으로 깜짝무대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다.



사자평은 재악산 동남쪽 7부 능선 자락에 형성돼 있는 고산습지로 다양한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보호 구역이다. 58만㎡, 축구장 81개 크기의 이곳은 가을이면 억새가 물결을 이루는 장관이 펼쳐진다. 사자평이라는 이름은 습지평원이 재악산 사자봉 아래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사자는 지혜, 즉 깨달음을 상징한다. 부처님의 말씀을 사자후라고 하듯이 사자평은 말없이 대자연의 이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하는 곳으로 전해져 왔다.





이런 이유로 스님과 불자들은 이곳을 터전 삼아 지혜를 닦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몸을 단련했다. 신라의 화랑도가 그랬고 조선시대 임진왜란 전후 사명대사가 승군을 훈련시켰던 곳도 이곳이다. 단순한 고산습지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의 안녕을 지키려했던 화랑도와 스님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 호국의 땅이 바로 사자평인 것이다.

이날 순례는 삼보순례 회향을 앞둔 주말을 맞아 일일참가자 200여명이 동참해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동국대 불교청년지도자, 수국사 상월청년회 등 불교의 미래를 이끌 청년불자들이 대거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 자헌 스님은 “동국대 불교청년지도자들이 불교계가 포교를 위해 어떤 원력을 갖고 천리순례를 하는지 몸소 체험하는 것은 물론 그 원력에 작은 힘이나마 더하기 위해 동행했다”며 “학생들이 동국대를 통해 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처럼 더 많은 학생들에게 불교를 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수국사 상월청년회 김근영(29) 불자는 “하루 걷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이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걷고 주무신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놀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아홉 스님께서 상월선원 정진을 하실 당시 청년들이 모여서 응원해드리자는 취지로 모임을 발원한 이후 많은 청년분이 지원해주셨고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은 비대면 모임을 이어왔다”며 “상월선원의 의미를 알고 있는 청년들을 모인 이 모임이 이번 순례동참을 계기로 계속 진행되고 확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의원도 이날 순례에 함께 했다. “길이 가파르고 힘들어 나무아미타불이 절로 나왔다”고 말문을 연 이 의원은 “아미타부처님 가피로 하루 순례를 마친 것 같다.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이번 순례길이 원만히 성취되고, 회향의 공덕으로 나라가 화합하고 통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1606호 / 2021년 10월27일자 / 법보신문 '세상을 바꾸는 불교의 힘']

※ 이 기사를 응원해주세요 : 후원 ARS 060-707-1080, 한 통에 5000원



당신의 1만원, 2명에게 새 삶이 됩니다

교도소·병원·군법당에 신문 보내기

010-4655-7010로 문자 '법보시'를 보내주세요

관련기사

- ▶ [천리순례 16일차] 느린 걸음 씬 없이 움직여 호국선양도량 표충사 도착
- ▶ [천리순례 15일차] 물결처럼 늘어난 환영 현수막...밀양불자도 함께 걸었다.

- ▶ [천리순례 14일차]사부대중, 한국불교 위기극복 위해 머리 맞댔다
- ▶ [천리순례 13일차] 구름 걷힌 가을 벌판 가로 질러 부곡 입성
- ▶ [천리순례 12일차] 새벽부터 세찬 비바람 맞으며 다시 27km 전진
- ▶ [천리순례 11일차] 거센 비바람 뚫고 걸어걸어 동쪽으로 나아가다
- ▶ [천리순례 10일차]해인사서 22km 나아가 경북 고령 예마을캠핑장 도착
- ▶ [천리순례 9일차] 화엄의 바다, 범보종찰 해인사에 들다
- ▶ [천리순례 8일차]벼 익어가는 길목에서 가야산을 바라보다
- ▶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천리순례단 격려방문
- ▶ 밀양 표충사, '향사부터 삼보사찰 순례까지' 호국불교 문화축전 봉행
- ▶ [순례단 인터뷰] 천리순례길 위에서 1주년 맞이한 주윤식 중앙신도회장
- ▶ [천리순례 7일차] 새벽녘 오도재에서 함양 용추캠핑장까지 30km 행선
- ▶ [천리순례 6일차] 실상사 맑은 종성 뒤로 하고 깨달음의 길에 서다
- ▶ [천리순례 5일차] 우직한 소걸음으로 지리산 넘어 남원에 닿다
- ▶ [천리순례 4일차] 강풍 몰아치는 지리산 시암재에 오르다
- ▶ [천리순례 3일차] 새벽엔 도량석·칠정례...식사 땀 오관개·축원으로 마무리
- ▶ [순례단 인터뷰] 5조 조장 지해 스님
- ▶ [순례단 인터뷰] 순례단장 원명 스님
- ▶ [천리순례 2일차] 새벽을 깨우는 맑은 목탁 소리 따라 섬진강변을 걷다
- ▶ 정혜결사도량 송광사서 불교중흥 발원 천리순례 첫발 내딛다
- ▶ “불교중흥의 원력 키운 시간...대중의 힘 발견”
- ▶ [천리순례 18일차] 423km 64만 발걸음 옮겨 통도사 진신사리 친견



이메일



기사저장



공유

저작권자 © 법보신문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1개의 댓글

작성자

비밀번호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법률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 작성이 간편합니다.

0 / 400

등록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① BEST댓글



삼보사찰 천리순례 (비회원) | 1일전

[삭제](#)

불교방송 btn 으로 삼보사찰 천리순례

잘보고 있어요
정말 사부대중들 다함께 행하는 순례
모습 장하고 장하십니다
하늘의 부처님과 불보살님들도 다 보고 계시며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회주 자승스님 정말 멋지십니다
그외 다른 분들도
이런 좋은 행사로 차츰 불교중흥 국난극복
꼭 이뤄지길 빌어봅니다

답글 작성 1 0

매체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저작권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대표전화 : 02-725-7010 팩스 : 02-725-7017
법인명 : ㈜법보신문사 제호 : 법보신문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등록일 : 2005-11-29 발행일 : 2005-11-29
발행인 : 김형규 편집인 : 이재형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규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
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
합니다.

Copyright © 2021 법보신문.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http://www.beop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718

8/8페이지